



[종합]
현대·기아車
英 전기차업체에
1억유로 투자
04

코스피 2248.05 (+17.07)	코스닥 686.52 (+7.36)
금리 (국고채 3년) 1.43 (+0.04)	환율 (원·달러) 1161.10 (+4.10)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미세먼지 관측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1/3축소모형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AI 1등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文대통령 새해 첫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일 거리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강국’ 및 ‘AI(인공지능) 1등 국가’라는 목표점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힘을 골자로 한 이번 목표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가관인 ‘혁신적 포용국가’와도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신년 업무보고 때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과기부와 방통위부터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전문가·연구개발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며 “특히 오늘 업무보고가 열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이다. 이제 대덕특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도약 시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 번의 대도약을 이루어내고자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하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국가 R&D(연구개발)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고도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작년 사상 처음 연구개발 예산으로 20조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18%를 증액한 24조원이 투입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려한 예산 투입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2배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한 후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AI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

‘K-바이오’ 글로벌시장 새판 짠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층 높아진 K-바이오의 위상을 드러냈다. 탄탄한 신약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 올해 새로운 성과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지스와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13~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 R&D 현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올해도 메인세션 강연자로 초청을 받으며,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그랜드볼룸에 섰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 생

산능력을 가진 위탁생산(CMO) 사업은 물론, 위탁개발(CDO) 사업 역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역시 올해 메인세션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다. 그는 올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바이오의약품 ‘эм시마SC’를 통해 전세계 퍼스트 무버에서 글로벌 시장 판도를 뒤집는 게임체인저로 성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은 핵심과제로 개발 중인 신약을 소개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권 사장은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제와, 이중기전 비만치료제, 새로운 기전의 비만치료제로 이어지는 탄탄한 핵심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고, 올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혁신은 어디서 시작되나. 규제혁파 vs 재정투입

정부는 지난해 연구개발(R&D)에 20조원을 배정한 데 이어 올해는 24조2000억원을 투자해 혁신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타다 사태’, ‘데이터3법’의 늦은 통과 등 정부의 규제로 대한민국은 ‘규제 천국’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유로운 연구개발이 어렵고 산업 성장이 어려워,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편집자주

“타다, 택시 일감 안 뺏어 공유경제가 불평등 완화”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토론회

이재웅 “작년 택시매출 역대최고 서울 택시7만대, 타다 1500대뿐 타다로 택시업계 피해는 적을 것”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가 자동차 대수를 줄임으로써 공유경제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토론회에서 “2015년 쏘카가 본격화되고, 2018년 타다가 시작되면서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가 87만대에서 지난해 47만대로 줄었고, 지금 대로라면 올해는 20만대 수준으로 예상돼 내후년 이면 더이상 신규 차량 등록 대수가 늘지 않는 첫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며 “공유경제가 안착하면 자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가 집값을 늘리고, 쏘카나 타다가 일부 차량을 늘리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재웅 대표는 “공유경제는 이야기된 지 10년도 안 된 짧은 역사의 미성숙한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평등 완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타다 금지법 금지’ 대담회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저희가 50% 더 좋은 처우를 하고 있다”며 “저희가 4대 보험을 보장 못 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자리가 일거리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4대 보험·실업·산재 등을 일자리 기준에서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바꿔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가 택시 업계의 일감을 뺏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택시 매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점을 짚으며 “택시 매출 상승이 요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택시 매출은 타다가 있을 때도 올랐고, 없을 때도 올랐고, 요금을 인상해도 올랐다”며 “서울시만해도 택시가 7만대가 있고, 타다는 1500대뿐인데 이론적으로 따져 봐도 피해는 적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타다 때문에 택시 매출이 15% 오를 것이 8%밖에 안 올라갔다는 것은 따로 분석해 봐야 할 문제”라며 “그런 분석 없이 타다 때문에 택시가 피해 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AI 반도체 1조, 5G 30조… 돈으로 사는 혁신

과기부 2020 업무계획

전 국민에게 AI·SW 교육기회
고급·전문인재 5000명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를 ‘A 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A 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10년간 1조원을, 2022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5G에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시범학교를 150개 선정하고,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6개월 내 하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강국’, ‘DNA(데이터·네트워크·AI)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강국’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 주요 내용

AI·SW 인재 양성	5G 투자	AI 반도체 핵심기술	데이터 산업	국민체감 AI융합서비스	우주분야 전략기초 확보
고급인재 1천여명 (2020년) 연합뉴스	민·관협동 총 30조원 (~2022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조 96억원 (2020~2029년)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확장 9조원대→10조원대 (2020)	AI+X 경제·사회 전분야 국민체감 AI융합서비스 발굴 프로젝트 'AI+X' 추진	천리안위성 2B호 (2020년 2월) ※세계최초 정지궤도 미세먼지 관측

AI 국가전략으로 전 국민에게 A I-SW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AI-SW 고급인재를 1000명, 전문인재를 4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또 175억원을 투자해 AI 대학원 12개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400개의 SW 중심 대학에 800억원을 투자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올해 257억원 규모로 본격 운영한다.

AI 융합서비스 발굴 프로젝트인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 반도체(PIM), 딥러

닝 고도화 등 차세대 AI 개발을 추진한다.

데이터 3법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올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지난해 9조원)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유출 방지를 위한 비식별화 등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전용펀드도 올해 민간 투자를 포함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컴퓨터 파워 지원 기관을 올해 800개(지난해 200개)로 확대한다. 또 올해 범부처 차원에서 AI 윤리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